성수스님은

절약 생활화 솔선수범

성수 스님의 담백한 성품은 황대선원의 살림살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천도재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없는 토굴이라, 30~40여 명의 대중들이 상주해 있는 황대선원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스님이 선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절약이다. 올 겨울의 경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사는 만큼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이 있었던 터라, 선원의 대중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에도 겨우 냉기가 가실 정도의 서늘한(?) 방에서 정진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큰 스님이 화장지를 한 번에 두 마디 이상 찢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한 거사의 말처럼, 스님은 검약을 먼저 솔선수범하시니 구구한 이야기를 안 해도 대중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성수 스님은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944년 부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조계사 · 법어사 · 해인사 · 고운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며, 경남 안위 황석산 황대선원의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불성의 주장자를 세우면 생각이 온전해지고, 지혜가 생긴다." 평생을 불도를 닦기에 게으르지 않으셨던 성수 스님의 주장자는 이 말의 뜻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기업체 사장이며 관할 경찰서장 등이 찾아와 스님을 친견했다.

"그냥 건성으로 절에 다니고 스님을 찾아다녀서는 안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어야 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무작정 전하기에 앞서 그들이 왜 찾아 왔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정진에 임했을 때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 말에 부연이라도 하듯이 효봉 스님과의 일화를 말씀하셨다.

"은사이신 성암 스님의 서찰을 들고 해인사에 갔습니다. 그때 나는 선원에서 공부할 작정이였죠. 그런데 공양간 일을 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당시 해인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효봉 스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때 효봉 스님은 '하심(下心)을 먼저 배워라' 고 하셨죠. 나는 '상심(上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심을 알겠습니까'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새파란 젊은 스님의 당찬 기세를 잘 본 탓인지 7일 이내에 도를 깨치겠다는 약조를 하고서야 태극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방에서 주리를 튼 지 6일만에 나는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이요 만상은 무비도(無非禪 無非道)' 라는 개오를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부딪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예요."

스님이 불도를 닦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심(發心)의 마음가짐이다.

"발심을 왜 하며 불도는 왜 닦아야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닦고 무엇 때문에 불도를 닦는 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불도를 닦아야 합니다. 우물쭈물 미루다 보면 수만 겁이 지나도 불도와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발심한 척하지만 행동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버리는 요즘 세태를 단호히 나무라신다. 진정한 발심 없이 자비문중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받은 화두를 자다 먹는 떡과 같이 아무 맛 모르고 자리나 지키며 세월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이다.

교리나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달을 보도록 노력해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손가락에 가려진 달을 보지 못하니 한평생 고민하고 병만 들어 일생을 망칠 뿐이다. 여기에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르는

'꼭 이루겠다' 마음으로 치열하게 부딪치는게 수행자의 자세

선지식에게서 화두 아닌 화두를 받아 쥐고 일념(一念)병에만 사로 잡혀 있으니, 일생은 고사하고 수만 겁을 지나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발심을 하고 나면 '쇠뿔을 단김에 빼라' 는 속담에 맞는 용기와 분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찰나간(剎那間) 혹은 여반장(如反掌)이라 말한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불도는 익혀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 를 일도양단 하는 것입니다. 불도를 깨우치는 데는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 넘어야 비로소 불도의 맛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일만 애써 닦아도 / 생사해탈 하는데 / 석달이나 닦은 마음에 / 조금도 얻은 바 없네(三日修道 生死解脫 三月修心 小無功得)' 라는 〈초발심자경문〉의 내용을 즐겨 암송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스님은 또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찾아 그 지도를 받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씨앗이 눈을 뜨는 과정이며, 눈 뜬 후에 물보다 연한 촉이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볼자들 역시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막연하게 수행을 시작하고 남의 다리만을 긁는 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매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행을 올바로 하려면 계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요즘 너무 계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스님이나 재가불자 모두 부처님처럼 살고 싶으면 계율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실 때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어 봉축일을 맞는 불자의 마음가짐도 짚어주셨다.

"곧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을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제를 여는 것도 좋지만, 먼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간절한 마음을 발원하여 보물을 얻었습니다.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열반(涅槃), 해탈법입니다. 열반은 영원한 무한대에 도달한 진리 그 본체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대 조사들도 노심초사한 끝에, 이 영원한 열반의 본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원을 세워 열반의 구법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마음 속에 불필요한 번뇌의 불씨까지도 없앤 탓인가, 스님은 요즘 먼 산의 등줄기에서 부처님의 형상을 본다. "저 산은 부처님의 열반상을 닮았죠. 또 저 산은 부처님이 누워있는 얼굴의 윤곽을 옮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이 맞아요." 번뇌 없는 수행자의 모습은 우주를 삼키는 사자 같고,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보살의 품과 같다. 아마도 그 속에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법신(法身)이 있을 것이다.

봄을 가득 머금은 4월의 햇살이 선원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황석산 자락에 적멸하고 있었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수완스님의
스님이야기
함현스님

"불전 놨어?!!"

승속을 막론하고 함현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듣는 제일성이다.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자신 어느 절 어느 법당이고 간에 참배를 할 때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이 불전 내는 일이다. 함께 참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들 불전 빠뜨리지 말고 꼭 내라고 당부한다. 충주 관음사와 제천 고산사의 중창불사를 도깨비 장난처럼 뚝딱 해치우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훌쩍 떠났다. 말 그대로 운수납자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릿광대 같은 순수한 열정뿐이다. 항상 떠날 준비를 먼저 하고 머무르는 사람이다.

제방선원을 찾아 20여년간 정진을 하던 그가 수년전에 선방 문고리를 놓고 홀연히 한국을 떠난적이 있었다. 불교 유적지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만행을 다녔다.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인도 전역을 세 바퀴나 돌며 살살이 찾아 다녔다. 또 실크로드의 남, 북로를 따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중국, 티베트, 네팔 등 발길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다니는 동안 그 형색이 거지와 구분이 안될 정도였다. 그가 몇 년 후 바람처럼 한국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 몰골을 본 나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웃고 또 웃었다. 도대체 한국인이 아니었다. 한국에서도

20여년 선방 정진
문화환경 수호 앞장

상영한 적이 있는 중국 영화 '붉은 수수밭' 에 나오는 가마꾼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또 어찌 보면 태국 사람 같기도 했다. 그후 함현스님은 그 얼굴을 지금까지 가지고 산다.

제천 고산사에서 살 때의 일이다. 오후에 세 시간 동안은 자유 정진을 했는데, 울력을 하거나 산행을 주로 했다. 이교도의 방화로 인하여 소실된 어떤 사찰의 타다 남은 잔재들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 가져다 화목으로 썼다. 일정한 크기에 맞추어 자르고, 쪼개는 작업을 하다보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처럼 숯가루로 범벅이 되곤 했다. 살림을 맡고있는 함현스님에게 요구를 했다. 광부들도 석탄을 캐고 나오면 돼지고기하고 막걸리를 먹어서 탄가루를 씻어낸다는데, 숯가루 펄펄 날리는 장작을 패면서 돼지고기까지는 안 먹더라도 맥주라도 한 깡통씩 마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함현스님이 어느 날 신도들에게 저 숯 광속에서 정진하는 수좌들 목 좀 씻겨 주라고 농담조로 말했더니 정말로 한 신도가 명절 때 선물로 받은 거라며 나폴레옹 꼬냑 한 병과 시바스 위스키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숯가루를 씻는데는 이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다. 함현스님이 가라사대 "꼬냑은 내 약이니까, 너거들은 위스키 먹어라. 으-음 역시 꼬냑은 좋은 약이야" 하면서 자기만 한 잔씩 했다. 며칠 후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는 위스키와 꼬냑의 내용물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함현스님은 이 사실도 모르고 계속 "음, 역시 꼬냑은 좋은 약이야" 하며 마셨고, 우리도 "그래, 꼬냑은 좋은 약이지" 하며 맞장구를 치곤 했다.

함현스님의 인솔하에 2년전 도반들과 인도 등지를 다녔다. 그는 불교 유적지라면 어느 곳이든지 빠뜨리지 않고 데리고 갔다. 어떤 날은 하루종일이 걸려 찾아갔는데 벽돌조각 몇 장만 굴러다닐 뿐 유적지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곳도 있었다. "이런 곳에 무엇 하려고 이 고생하며 오느냐" 고 투정을 하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라며 멀쩡한 곳만 성지이고 허물어져 폐허가 된 곳은 성지가 아니냐며 으르렁거렸다.

스님의 이같은 순수한 열정은 한국에 돌아온 후 더욱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이분법적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복잡한 양상의 문제이다. 그중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거의 모든 사찰들은 개발 현



장과 최일선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허인사 인근의 가야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비롯한 송광사, 금산사, 범어사, 석남사 등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찰들이 개발 계획과 맞물려 진저리치도록 몸살을 앓았다. 지금도 지리산 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의 여러 사찰들이 몸 부대끼며 투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리산 댐 건설계획은 5공화국 때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백지화와 계획변경 사이를 오가다가 지난해에 다시 구체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함현스님은 지금 지리산 댐 건설 반대를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리산 인근의 장터마다 다니면서 댐건설 반대캠페인을 하고, 또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보로 행진하였다. 자연 환경 훼손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고, 문화환경 파괴는 정신과 역사를 피폐화시키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현스님은 결코 재야 운동가가 아니다. 20여 년 동안 좌복에 앉아 화두 참구를 하고 있는 선승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좌복을 박차게 했는지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그를 선승이 아닌 사회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참선하는 수좌일 뿐이다. ▩ 정취암 주지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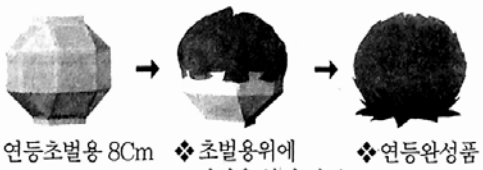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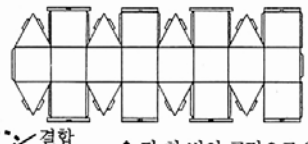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

제 1 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부산불교신도회에서는 각 사암 및 불교단체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최고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고의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자격	1. 각 사암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 2.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자 3. 불교신행단체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자 4. 불교대학 포교사 과정을 수료한자
교육기간	2001년 5월 11일 - 10월 12일(5개월)
교육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교육장소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
원서접수	2001년 4월 2일 - 5월 10일
모집인원	70명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시 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 ☎ 051-853-2021, 464-2020
전형방법	서류전형
입학식	2001년 5월 11일(금) 오후 7시
등록금	30만원(입학금 50,000 수업료 250,000)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이사장 정 여 합장
학 장 강 선 태

한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원력과 실천,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